

# “새 먹거리 찾기” 이통3사 3색 전략

SK텔레콤 '플랫폼·AI', KT '5G', LG유플러스 '사물인터넷'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통신3사가 미래 성장동력 구축 차원에서 이차산업 차별화된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새해에는 이같은 각사의 행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유무선 이용률이 둔화되면서 전통적인 망 사업으로는 활로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금융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 등으로 개념을 확장하는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SK텔레콤의 생활 금융 플랫폼 '핀크'가 모습을 드러낸다.

SK텔레콤의 금융 플랫폼 고민을 풀어줄 주식회사 핀크는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이 각각 51%, 49% 비율로 출자했으며 자본금은 500억원이다. 이 회사는 SK텔레콤의 모바일 플랫폼 기술력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의 다양한 금융 상품과 금융 노하우를 결합했다. 주요 사업은 모바일 자산관리, 계좌기반 서비스, 개인간대출(P2P) 금융, 핀테크 기업 투자 등이다.

이밖에 SK텔레콤은 자율주행차 전용 통신기술, 음성인식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 개발 등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고 있다.

SK텔레콤 '플랫폼' KT '5G' LG유플러스 '사물인터넷' 집중 내년 통합방송법 통과되면 케이블방송 인수전 점화될 듯

KT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업계 최초로 차세대 통신기술 5G를 시범서비스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사인 KT는 올림픽이란 글로벌 이벤트를 기점으로 5G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KT는 그동안 5G 관련 기술특허만 60여 건을 출원·획득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KT는 2017년 9월까지 세계 최초 5G 시범 서비스를 위한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5G 시범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정선, 강릉을 중심으로 서울 일부 지역까지 꾸려진다. 이어 4~5개월에 걸친 안정화를 거쳐 2018년 2월 9일 5G 시범 서비스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홈 사물인터넷 사업에서 확고히 업계 1위를 굳히고, 법인 영업(B2B)에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홈 IoT 서비스를 상용화한 LG유플러스는 올해 가입가구 50만을 거둔 뒤 돌파했다. 내년에는 100만

가구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자사 IoT 서비스를 이용하게 개설했다. 법인영업 강화도 LG유플러스만의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일반 무선은 SK텔레콤이, 유선은 KT가 선점한 상황에서 후발주자 LG유플러스가 틈새 시장을 찾는 전략이기도 하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LG그룹 내에서 다수의 인수합병을 성사시키며 B2B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영향도 있다.

지난 9월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권 부회장은 "LG유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는 3등이지만 사물인터넷은 이미 1등이고, 기업고객 대상의 B2B 사업도 1등을 앞두고 있다"며 "IoT디스플레이 대표시절을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한 경험이 많다. 1등을 하려는 열정이 누구보다 강하다. 사물인터넷과 B2B 분야에서 확실하게 1등을 굳히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공언했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방송사 인수전에 언제 뛰어들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권영수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정비되는대로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전

에 뛰어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사 SK텔레콤과 KT도 케이블방송사 인수합병 가능성을 열어놓는 상황이라 내년은 방송통신시장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글로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바보 통신사(덤 파이프·Dumb Pipe)'란 자조섞인 별명이 떠돌고 있다. 부가가치 없이 통신망만 제공하는 파이프 배관에 머물러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동통신사업은 소수의 통신사가 내수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로 글로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신망 이외에 경쟁력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이동통신기업 AT&T가 콘텐츠 기업 타임워너를 인수하려는 것도 망 사업 이외의 수익모델을 찾으려는 시도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도 이같은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먹거리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체권이 박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게이트에 휩쓸리면서 통합방송법을 비롯한 주요 안건 논의가 연기되고 있다"며 "통합방송법을 반드시 논의될 이슈인만큼 안건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

## '최순실' 올해의 핵심 검색어

카카오 '비선실세 국정농단' 1위... 구글 '최순실' 5위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이 올해의 화제 및 인물 주요 검색어로 선정됐다. 카카오페이와 구글코리아는 15일 각각 '올해의 검색어' 발표를 통해 최순실이 올해의 화제 검색어와 올해의 인물 검색어 최상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지난 10월부터 불거진 최근 사건이지만 워낙 큰 이슈라 단숨에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카카오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해 발생한 이슈 중 가장 화제가 됐던 검색어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이었다. 2위는 20대 총선, 3위

는 지진, 4위 리우올림픽, 5위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대결이었다.

아울러 키워드 '최순실'은 인물 검색어 10위에 올랐다.

구글이 집계한 '한국 인기 검색어' 종합 5위 역시 최순실이었다. 1위는 영화 '아가씨', 2위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3위 연예인 '박유천', 4위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등 주로 연예·문화계 이슈가 상위권이었지만 최순실은 유일하게 정치 이슈만으로 인기 키워드에 올랐다.

이어 6위부터 10위까지는 영화 '내부자들', 드라마 '도깨비', 이세돌 9단, 리우 올림픽, 게임 '오버워치'가 차지했다. /뉴스



화웨이 직영 서비스센터 오픈 화웨이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국내 첫 '직영 서비스 센터'를 오픈했다. 화웨이 '직영 서비스 센터'에서는 전문 엔지니어를 전담 배치해 방문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은, 기준금리 6개월째 1.25% 동결

미 금리인상·가계부채 등 대비 시장선 금리인하 요구... 한은 '딜레마'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리는데 이어 6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보다는 미 금리인상 후폭풍과 가계부채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안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장에서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예상이 압도적이었다.

지난 13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16년 12월 채권시장지표'에서도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 가운데 98명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동결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내수 부진 등에 따른 국내 성장률 둔화 우려가 금리인하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12월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 외국인 자금입탈 우려,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이 금리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금투협 측은 분석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 대통령 탄핵 가능성 등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1997년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한은이 보다 적극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됐다.

또 이날 앞서 열린 미 연방준비제도 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당초 예상대로 금리인상이 단행됐음에도, 내년 3차례의 인상을 시사하며 향후 공격적인 긴축정책을 암시해 시장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연준의 결정 발표 이후 미국채 금리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채 2.44%대에서 횡보하던 미 국채 10년 금리는 단숨에 2.5%선까지 뛰어

올랐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2.58%까지 치솟았다. 30년물도 3.1%선에서 3.2%선까지 뛰어 올랐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시장 반응은 연준이 내년 금리인상 속도 역시 빠르게 가져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연준이 전망치를 상향 수정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연준의 경기 인식이 트럼프 재정 정책 효과를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경계감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트럼프 정책이 시행되고, 그 결과가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연준의 인식 및 통화정책 스펙트럼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을 이끈 주요인으로 꼽힌다.

전날인 14일 나온 '2016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월에 비해 8조8000억원 증가한 704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2008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역대 두번째이자,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가계부채 급증세가 상당 부분 해소될 때까지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흐름 상 한국도 추가 통화완화는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이 전개될 것"이라며 "다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경제 판데네타일에 부합하는 통화정책이라 보며, 한은 금통위는 내년 상반기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채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하며, "국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상반기 추경 편성과 금리인하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 한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뉴스

## 수평 투수성 토목용 직포매트 개발

ECO융합섬유연구원·대운지오텍 등 컨소시엄

ECO융합섬유연구원은 토목용 직물 매트 전문생산업체인 대운지오텍(주), 한국기술개발, FTT시험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년여 동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수평 투수성을 갖는 토목용 복합 다기능 직포 매트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내 토목용 지오텍스타일 제품군은 중저가형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글로벌 시장 특히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의 시장에서 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 업체 등과 고성능 복합기능성 제품군을 선도하는 Tencate 등의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시장 경쟁력이 감소되는 추세였다.

개발된 제품은 해외토목공사 현장에서 요구되는 분리·보강 기능뿐만 아니라 지반층과 성토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물을 배수를 위한 측면 배수성 즉 수평 투수성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복합 다기능 직포 제품이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이형단면사를 이용한 사가공 기술을 담당하고 대운지오텍(주)은 특수 구조의 제직 설계 및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고 성능평가는 FTT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또한 한국기술개발은 현장 시공테스트 및 시장성 규격개발을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국내 특허 4건을 출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